

역사소설, 창기(創/記)의 경계를 횡단하다

- 김영하의 역사소설 『검은 꽃』을 중심으로

김 병 길*

1. 서론
2. 비-사건적인 역사의 귀환
3. 소문자 허구로 쓰는 역사
4. 복수의 담화적 층위
5. 닫힌 서사를 위한 변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 한 세기에 달하는 역사를 지닌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구체적인 논점을 선정하였다. 첫째는 ‘비-사건적인 것’에 역사소설이 주목하는 이유와 의의의 문제이다. 둘째는 대문자 역사가 망각한 시공간을 소문자 허구로 복원하는 역사소설의 서사 전략에 관한 논의이다. 그리고 마지막 논점은 ‘사가연(史家然)하는 역사소설의 서술자와 서술자연하는 역사소설의 작가, 그리고 작가연하는 사가’, 세 층위에 걸친 발화가 담화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의 서사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것이다. 이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 문학의 내재적 특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주요 분석 대상이자 증거 텍스트로 선정된 작품은 김영하의 『검은 꽃』이다. 20세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기 초의 역사를 대상으로 21세기 벽두에 창기(創/記)되었다는 사실과 작품의 주된 배경이 멕시코 혁명사라는 점이 이 텍스트만의 예외적인 면모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수난사가 그 주요 모티프라는 점이 전통적인 면모이다. 이 같은 역설적 국면이 앞의 세 논점들의 해명에 있어 이 작품을 최적의 텍스트로 꼽게 한 이유다.

주제어 : 서사전략, 비-사건적인 것, 공적 역사, 미시사, 창기(創/記)

1. 서론

식민지 시대 김기진은 역사소설을 가리켜 “조선문학의 큰집”²⁾이라 말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전성기를 연 작가 대열에 합류했다. 역사소설에 바친 김기진의 그 같은 상찬은 실은 대단한 조롱이자 야유였다. 양적으로는 조선문학을 대표할 만한 했으나 통속소설의 간판 격으로 전락한 역사소설의 타락 현상을 꼬집는 말이었던 것이다. 김기진이 직시한 대로 근대 조선의 역사소설은 철저히 상업적 목적에서 쓰였고 자미(滋味)로 소비되었던 글쓰기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외래로부터 수입된 이 글쓰기를 ‘민족서사’로 읽기를 고집했다. 이 글은 태동한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그 같은 욕망이 퇴적돼 온 심층을 절개해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탐침 지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는 ‘비-사건적인 것’에 역사소설이 주목하는 이유와 의의의 문제이고, 둘째는 대문자 역사가 망각한 시공간을 소문자 허구로 복원하는 역사소설의 서사 전략에 관한 논의이다. 셋째는 ‘사가연(史家然)하는 역사소설의 서술자와 서술자연하는 역사소설의 작가, 그리고 작가연하는 사가’, 세 층위에 걸친 이들 발화가 담화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의 서사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살피는 일이다. 이 같은 논점

2) 김기진, 「朝鮮文學의 現段階」, 『新東亞』, 1935. 1, 143쪽.

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소비함으로써 소설을 얻고자 한, 혹은 소설이기에 앞서 역사이고자 한 역사소설 문학의 뿌리 깊은 전통의 면면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역사와 민족과 국가의 의미를 심문하는 작품이자, 역사소설이란 형식을 빌려 역사와 민족과 국가라는 근대의 신성한 우상이 균열이 나고 몰락하고 끝내 무화되는 지점까지 밀고 나간 작품”³⁾이라 평가 받은 바 있는 김영하의 『검은 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논의 대상으로서 최적의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우선 20세기 초의 역사를 대상으로 21세기 벽두에 창기(創記)⁴⁾된 작품이라는 사실에서 그 시간적 거리가 환기시키는 상징성이 소소하지 않다.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국한된 지리적 공간을 벗어나 멕시코라는 이국땅이 무대라는 점, 세계사의 변방이라는 할 멕시코 혁명사가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역사소설에서 만나기 어려운 매력적인 외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검은 꽃』의 주요 모티프는 한민족의 수난사다. 이 작품이 근대 한국 역사소설의 계보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는 표면적 증거인 셈이다. 대문자 역사에 의해 망각되어 온 멕시코 한인이민사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 비-사건적인 것의 역사화 작업은 기성 역사소설 창작 관행에 대한 일종의 회의적 반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적 국면들이 앞서 제기한 세 가지 논점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 『검은 꽃』을 최적의 텍스트로 선정토록 압박한 배후일 터다.

3) 남진우, 「작품해설: 무(無)를 향한 긴 여정」, 김영하, 『검은 꽃』, 문학동네, 2003, 327쪽.

4) 이 용어는 필자가 이 글에서 처음 사용하는 신조어다. 그간 역사소설 관련 논의에서 ‘사실’과 ‘허구’라는 용어는 역사소설 텍스트에 서술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공적 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역사소설가의 서술 태도상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서술태도의 문제는 작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영역이어서 사실과 허구라는 용어로 포괄하기 적절치 않은 영역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창(創)과 기(記)라는 용어를 도입코자 한다. 창작(創作), 곧 ‘새로 짓다’라는 맥락을 지닌 서술태도를 창(創)으로, 기술(記述), 곧 ‘전거에 근거하여 재서술한다’는 맥락의 서술태도를 기(記)로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상이한 서술태도는 역사소설 텍스트에는 항시 공존하기 마련이거니와, 그 분절적 국면을 가리키는 용어가 창기(創記)인 셈이다.

2. 비-사건적인 역사의 귀환

역사는 기억과 망각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이다. 기억은 망각을 전제로 가능한 행위이고, 역사는 그러한 기억을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나 기억만이 역사일 수는 없을 터, 아이러니하게도 기억이 묻어버린 망각을 기억해내려는 시도가 곧 역사학의 일상적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날학파는 전통적인 역사서술이 오랫동안 대단하다고 평가되어 온 사건들만을 배타적으로 연구했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역사적 사건으로 칭하는 ‘조약과 전투의 역사’만을 써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그 한계를 알 수조차 없는 ‘비-사건적인 것(non-événemential)’의 엄청난 면적이 개간해야 할 것으로 남게 되었다. 폴 벤느는 아날학파의 그와 같은 인식에 동의하면서 그 ‘비-사건적인 것’을 아직까지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로 정의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역사적이라고 의식하고 있지 못한 역사성을 비-사건적이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⁵⁾

역사는 기록되지 못한 혹은 기억에서 배제된 ‘비-사건적인 것’으로 인해 불구의 지식일 수밖에 없다. 역사소설은 바로 이 ‘비-사건적인 것’에 주목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역사학을 꿈꾼다. 왜 그러한가? 역사소설의 재료가 되어 온 공적 역사, 즉 ‘사건적인 것’의 식상함을 탈피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위해서 역사소설가들이 미답지를 찾아 나선 것이다. 모든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비-사건적인 것’의 가장자리에 둘러싸여 있다. 바로 이 가장자리야말로 ‘사실’을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⁶⁾ 따라서 역사소설가가 ‘사실’ 언저리의 ‘비-사건적인 것’을 편애하는 경향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럴 듯한, 그러하고도 남을, 충분히 그러 했을 ‘비-사건적인 것’의 재현이 역사소설가로 하여금 역사에 발을 들여놓도록 유혹하는 기제인 셈이다. 좀 더 엄숙한 표현을 빌자면, 역사

5) 폴 벤느, 이상길·김현경 역,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새물결, 2004, 44쪽.

6) 위의 책, 87쪽.

의 공백을 복원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소설가의 임무이자 존재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국 근대 역사문학사에서 이 ‘비-사건적인 것’의 서사화 작업은 매우 다양한 명칭의 글쓰기로 시도되었다. ‘야사(野史)’ 혹은 ‘사외사(史外史)’로 불렸던 ‘비-사건적인 것’을 서사의 원천으로 삼은 ‘야담(野談)’, ‘강담(講談)’, ‘사상(史上)의 로맨스’, ‘사화(史話)’, ‘사담(史談)’, ‘사담(史譚)’ 등이 그것으로 안희남은 이를 ‘역사담물(歷史譚物)’⁷⁾로 총칭한 바 있다. ‘정사(正史)’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 역사의 이면을 들추어내거나 공적 기록의 행간을 채워나가는 작업으로서 역사담물 글쓰기는 지난 세월 대중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한편에서 한국의 근대 역사소설은 이 역사담물로부터 수혈 받아 발흥했고 근대적인 신문 지면의 주도권을 놓고서 경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역사소설은 근대 신문연재소설의 간판으로 부상한 데 이어 대중독물의 총아가 되었다. 해방 후에도 역사소설은 대표적인 신문연재 대중소설로서 그 확고한 입지를 굳혀갔다. 연재소설이 점차 신문 지면에서 사라지고 단행본 형태의 소비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도 ‘비-사건적인 것’에 집착하는 역사소설의 전통은 면면했다. 근자에 이르러 이 ‘비-사건적인 것’에 대한 편집증은 재미를 축매로 강화된 ‘허구’로 여전히 발현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의 일대기에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낸 것으로서 사실(fact)과 픽션(fiction)을 조합해낸 팩션(faction)의 등장이다. 사실과 허구의 고전적 경계를 허문 제3의 서사양식으로서 팩션에 보내는 대중의 갈채는 뜨겁다.⁸⁾ 그리고 이에서 한걸음 나아가 고증이나 역사적 실재 여부를 괄호

7) ‘역사담물(歷史譚物)’이라는 용어는 안희남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추정된다. 안희남은 역사소설이 되기에는 함량 미달인 서사물로 야담류를 평가하는 문맥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안희남, 「通俗小說의 理論的 檢討」, 『文章』, 1940.11, 152쪽.). 이 글에서는 ‘야담(野談)’, ‘강담(講談)’, ‘사담(史譚)’, ‘사화(史話)’, ‘사상(史上)의 로맨스’ 등 역사소설을 제외한 일련의 역사 서사물을 ‘역사담물(歷史譚物)’로 지칭한다.

8) 김기봉, 「팩션의 역사, 팩션의 사회사」, 『21세기 문학』, 21세기문학, 2006년 겨울, 21-22쪽.

친 상태에서 개연성보다는 여타 서사효과나 미적 효용성을 위해 역사적 요소를 차용하고, 필요하다면 현대적 감각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한 퓨전사극(fusion historical drama)의 출연을 보기에 이르렀다.⁹⁾ 위와 같은 새로운 흐름에 견주어 본다면, 『검은 꽃』은 차라리 ‘비-사건적인 것’의 역사에 충실한 고전적인 역사소설의 전통에 그 맥이 닿아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어느 이민사 연구자의 잡담을 몇 다리 건너 전해들은 계기로 김영하는 『검은 꽃』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비-사건적인 것’의 발굴이 역사소설 창작을 유인해낸 동기였던 셈이다. 김영하는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움 받은 바는 “제 아무리 대단한 상상력도 누군가의 피로 씌어진 단 한 줄의 1차 자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¹⁰⁾라는 고백이 말해주듯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김영하가 거론하고 있는 주요 참고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자경의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백종국의 『멕시코 혁명사』,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서인한의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웨인 패터슨(Wayne Patterson)의 『The Isle』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는 『검은 꽃』의 전체 서사 열개로 수용되었고, 『멕시코 혁명사』는 후반부 서사의 원천 자료로 참조되었다. 멕시코 혁명사 자체가 세계사의 일부이긴 하나 한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방의 역사이듯이 한국인들의 멕시코 이민사 역시 주류 한국사에서는 주변부 역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왕조 중심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 근대 조선의 역사에서 멕시코 이민사는 누락된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 사료는 망각의 역사를 재구성한 ‘비-사건적인 것’의 기록인 것이다.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의 저자 이자경은 이민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되기까지의 사정을 추적함으로써 ‘비-사건적인 것’을

9) 박유희, 「예술에 대한 메타텍스트로서의 두 역사극 - <왕의 남자와 음란서생>」, 『문예연구』, 문예연구사, 2006년 봄, 156쪽.

10) 김영하, 「작가의 말」, 『검은 꽃』, 문학동네, 2003, 354쪽.

공적 역사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국내에서 멕시코로 떠난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유카탄 메리다에 거주하는 중국인 허웨이(河惠)의 편지가 서울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한인들이 인천을 떠난 지 4개월이 채 못돼 <황성신문(皇城新聞)>(1905. 7. 29)에 두 쪽지의 현지 참상소식이 게재되었다.

2면(奇書란)에는 상동교회(尙洞教會) 만엘루 청년회 서기 정순만(鄭淳萬)의 기고 “국민(國民)이 진위노예(盡爲奴隸)어늘수능구호(誰能救乎)아”라는 글이 실렸고 3면(雜報란)에는 허웨이의 편지 내용을 소개한 샌프란시스코(이하 상황)의 중국계 신문 <문흥일보(文興日報)> 기사가 실렸다.¹¹⁾

이와 함께 이자경은 당시 신문 기사를 사료로 활용해 그 행간에 감춰진 사실들을 추론해냄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낸다.

정순만은 허웨이의 편지를 받게 된 출처를 기사 속에서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허웨이가 상황에 있는 한인 유학생 4명 안정수(安鼎洙), 신태규(申泰圭), 황용성(黃溶性), 방화중(方和中)에게 한인들의 참상을 적은 편지를 띄운 것을 <문흥일보> 기사와 함께 다시 6월 30일자로 본국의 상동청년회로 발송했다고 말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허웨이는 한인들에게 직접 편지를 띄운 것이 아니라 <문흥일보>로 띄운 것으로 그것을 지면을 통해 본 한인들은 4명의 이름으로 쓴 편지와 함께 <문흥일보> 기사를 동봉해 상동교회로 보냈다는 얘기가 된다.

한인 4명의 편지를 받은 만엘루청년회 전덕기(全德基) 회장은 당시 20대의 젊은 전도사로 이 일을 정순만에게 일임했던 것이다.¹²⁾

11)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111쪽.

12) 위의 책, 111-112쪽.

그리고 그 증거물로 허웨이(許淮伊)의 편지가 실린 <문흥일보> 기사와 허웨이의 편지 기사를 첨부함으로써 실증적인 역사기술 태도를 견지한다. 이렇게 역사의 표면으로 호출된 ‘비-사건적인 것’을 김영하는 『검은 꽃』에서 다음과 같이 차용하여 변주한다.

메리다에 살고 있던 중국인 허웨이는 메리다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조선인 이민자들과 조우했다. 그는 그때의 충격을 적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되는 중국계 신문인 문흥일보에 보냈다. 문흥일보에 실린 글을 읽은 미국 유학생 조영순, 신정환은 서울의 기독교청년회 앞으로 급히 편지를 써 날렸다. 청년회의 젊은 전도사 정선규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황성신문 앞으로 보냈다. “국민이 노예가 되었으니 어찌 이들을 구할 것이라”라는 제호의 기사가 나간 것은 1905년 7월 29일이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유카탄 채무노예들의 실상이 대한제국에 알려진 것이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김영하의 소설화 작업은 앞서 이자경의 기술을 소략하게 정리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사건의 정확에 대한 설명은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거론되는 역사적 인물이 가상의 인물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둘째, 사료가 말해주지 않는 공백을 메우는 역사기술 행위로서 이른바 ‘소급추정(rétrodition)’의 부분이 제거된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검은 꽃』이 역사소설로 창기(創記)된 텍스트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첫 번째 차이는 역사소설가가 흔히 행하기 마련인 일종의 허구적 각색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실존인물을 모델로 삼은 경우라 하더라도 『검은 꽃』에 등장하는 중심인물들 대부분의 이름이 바뀐 것과 이는 같은 맥락의 변개이다. 허구와 사실을 의식적인 층위에서 구분하는 동시에 후자를 실마리로 전자를 포획하는 창기(創記)의 서술태

13) 김영하, 앞의 책, 135쪽.

도가 목격되는 장면인 셈이다.

두 번째 차이는 이 텍스트가 역사적 기록의 재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한다. 소설은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글쓰기어서는 곤란하며, 짓는 행위에 기초한 글쓰기라는 사실이 이로써 표명되고 있는 것이다. 부연컨대 이는 역사의 소설적 구성을 위해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대가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지향점으로 삼지 않고 다만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삼는, 다시 말해 역사라는 콘텐츠를 소설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뿐인 ‘소설역사’¹⁴⁾의 한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글쓰기의 문법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일 뿐이다. 『검은 꽃』은 ‘소설’과 ‘역사’를 가로지르는 텍스트다. 작가는 이 텍스트에서 허구와 사실을 등가적으로 전유하여 서술한다. 기억과 망각 사이의 흐린 경계로 존재하는 ‘비-사건적인 것’의 역사는 작가의 이 분열적 개입에 힘입어 문학의 세계로 진입한다. 새로 짓는 행위로서의 창(創)과 전거에 근거하여 재서술하는 행위로서의 기(記)의 분절적 경계를 횡단하는 창기(創/記)의 글쓰기 문법이 아니고서는 이 ‘비-사건적인 것’의 역사가 대중에게로 무사히 귀환했을 리 만무하다.

3. 소문자 허구로 쓰는 역사

러일전쟁 발발 무렵인 1905년 영국 기선 일포드 호에 실려 1033명의 기민자들이 멕시코로 실려 가는 장면에서부터 『검은 꽃』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우여곡절 끝에 에네켄 농장에 도착한 그들은 4년의 노예계약 기간 동안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한다. 소설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인종, 계급 간 갈등을 축으로 이민자들의 행적을 좇거니와, 그것은 집단 파업,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산하의 메리다 지방회 설립, 송무학교 설립, 과테말라 용병사건, 그리고 혁명의 불길에 휘말린 멕시코 내전 등

14)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프로네시스, 2006, 12쪽.

이민사의 주요 사건들을 망라한다. 거기엔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은 인물, 그리고 완전한 허구의 인물들이 뒤섞여 있다. 굳이 주인공을 꼽자면 ‘김이장’과 ‘이연수’라고 할 수 있을 터, 이들은 철저히 가공의 인물이다. 작품은 일포드 호에서 처음 맺은 이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까지 숨 가쁘게 전개된다. 이들의 사랑은 끝내 이루지지 못하거니와, 멕시코 기민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이에 은유되어 있다. 두 남녀의 어긋난 생의 행로가 기민의 역사, 그 고통스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방편이자 소설의 극적 재미를 위한 서사적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검은 꽃』에서 역사와 문학은 허구의 미시사적 기록 형태로 조우한다.

『검은 꽃』의 서사적 모태가 된 이자경의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비-사건적인 것’을 역사의 무대로 소환하고 있다. 주변부 역사 연구의 한 페이지를 연 이 텍스트는 그 기술체계에 있어서도 종래 역사학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거시적인 역사가 아닌 개인과 소집단의 삶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는 미시사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대문자 역사가 아닌 소문자 역사에 대한 관심이다. 소설 『검은 꽃』의 기술 태도가 이와 상사하다는 사실은 따라서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검은 꽃』은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에 다소간의 허구를 가미한 변안 텍스트에 가깝다. 몇 대목만을 추려 두 텍스트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그 물증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에는 야스체 농장의 악질 통역이었던 ‘김진태’라는 인물의 만행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그는 농장주에게 아침을 일삼으며 불쌍한 동포들을 짐승처럼 학대했던 인물이다. 이자경은 ‘김진태’의 천인공노할 악질적 행위 다섯 가지를 거론한다. 첫째, 20세 된 한인 미혼 여성을 구타 및 협박한 사건, 둘째 부모와 한집에 살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고아라고 농장주에게 무고한 사건, 셋째 흥계를 꾸며 동족의 돈을 갈취한 사건, 넷째 한인들이 본국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차단한 일, 다섯째 한인들이 청국인과 내통해 구출 요청을 했다면서 그 증거로

청국인이 들여보낸 것이라는 성경과 찬미가 10여 권을 한인들로부터 물수하여 농장주에게 갖다 바친 일 등이다.¹⁵⁾ 흥미로운 사실은 ‘김진태’의 야스체 농장에서의 이 행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검은 꽃』의 주요한 서사적 모티프로 활용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존인물 ‘김진태’는 소설에서 ‘권용준’이라는 인물로 각색된다. 그는 역관 집안의 후손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몰락한 후 대륙식민회사의 통역이 되어 일포드 호에 승선한 인물이다. 선상에서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멕시코 현지에 도착하여 통역 일을 맡는다. 『검은 꽃』에서 작자 김영하는 이 ‘권용준’이라는 인물과 허구적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전체 서사의 골간으로 삼는다. ‘권용준’은 황족 ‘이종도’의 딸 ‘이연수’를 두고 ‘김이정’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농장주보다도 더 악랄하게 조선인 동포들을 착취하는 데 앞장선다. 허구적 인물인 ‘이연수’와 ‘김이정’의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권용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태’로부터 오롯이 그 악랄함을 이월 받은 ‘권용준’이 기민자의 전형이라 할 ‘이연수’와 ‘김이정’의 삶을 파괴해 나가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적인 서사 전개를 바탕으로 『검은 꽃』은 실제와 허구가 습합되는 지점 찾기를 시도하며 기민자들의 비참한 삶을 묵묵히 응시한다. 실제보다 더 실제와 같이 극화된 허구가 사실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은 꽃』이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의 기술 방식을 서사적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자경은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에서 기민자 후세들의 증언을 주요한 자료로 수용하고 있다. 이 텍스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4장 「후세들은 이렇게 증언하다」의 경우 기민자들이 정착했던 지역들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만나 행한 인터뷰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일종의 미시사로서 가족사 기술인 셈이다. 그 구체적인 기술 양상은 극작가로서의 필자의 이력을 말해 주듯이 문학적 담화 형식에 가깝다. 『검은 꽃』은 바로 이러한 사료 텍스

15) 이자경, 앞의 책, 308-311쪽.

트의 특성을 추수하는 가운데 실존인물들의 행적을 허구의 인물들과 연계시켜 가상의 사건으로 재구성해내는 서사전략을 구사한다. ‘제물포에서 유카탄까지’라는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의 부제와 소설 『검은 꽃』의 이야기 시공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역시 두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성과 이야기 구조의 상동성을 방증한다.

두 텍스트 사이의 이 같은 친연성은 공적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사건 서술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외부협판(外部協辦) 윤치호(尹致昊)는 고종황제의 특사로 7월 15일 일본유람단에 끼어 하와이와 멕시코 동포들의 생활상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지만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공장으로 실패하고 만다. 실제로 당사자 윤치호가 그 배경에 관해 기록해 둔 바 있거니와, 이자경은 『尹致昊日記』 속의 관련 내용들을 상세히 인용하는 가운데 그 전후 문맥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1월 2일 : 목요일, 오후 4시 도쿄 출발. 시나가와 역에서 한치유와 동행 오후 6시 고배행 기차에 탑승, 스티븐스가 기차에 올라와 배웅함. 3일 오전 9시 고베 도착, 4일 새벽 5시 30분 시모노세키 도착, 5일 오전 6시 후시마마루에 승선, 6일 새벽 부산 도착, 오후 11시 30분 서울 도착.

동월 8일 : 황제폐하 배알. 황제는 얼마나 멀리 갔느냐, 현재 거주지가 어디냐 등을 물을 뿐 멕시코는 고사하고 하와이의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묻지 않았음.¹⁶⁾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윤치호의 출국은 1905년 7월 15일의 일로 상동청년회의 조사단 출국보다는 40일 정도 먼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는 멕시코 이민선이 출항하기 2-3개월 전부터 일본행을 꿈꾸고 있었고, 그의 일본유람 및 하와이방문이 스티븐스의 협조로 이루어

16) 이자경, 앞의 책, 140쪽.

『尹致昊日記(六)』(『韓國史料叢書第一九』, 國史編纂委員會, 1976)에서 이자경이 발췌 인용한 부분임.

졌다는 점, 더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출국목적 안에 멕시코 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등만으로는 한국정부(고종)가 그를 멕시코 동포의 참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했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정부대표 자격으로 일본의 고문정치에 따라 상실된 외교주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이었다.¹⁷⁾

김영하는 『검은 꽃』에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이를 재차 아래와 같이 전경화 하고 있다.

11월 2월, 윤치호는 도쿄를 떠났다. 11월 6일 부산항에 당도, 그 해 1월 1일 개통한 경부선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해 자정 직전 서울에 도착했다. 11월 8일, 황제를 배알했다. 황제는, 그에게 얼마나 멀리 다녀왔느냐,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느냐, 힘없이 물었다. 멕시코는 고사하고 하와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윤치호는 실망하여 물러갔다. 황제는 피로한 기색이었다. 다음날,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을 방문하였다. 국가와 왕조의 존망이 이토의 손에 달려 있는 마당에 멕시코 이민자 문제가 황제의 관심사일 수는 없었다.

11월 17일, 외부 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는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제2차한일협약, 즉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윤치호는 외부 협판직에서 사퇴하였다.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였다.¹⁸⁾

윤치호의 기록이 자신의 행적에 정확성을 기한 속기록적 일지라면, 김영하의 서술은 극적 재현 양상에 좀 더 가깝다. 일기와 소설의 이 담화적 차이는 실상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종과의 면담에 이르기까지 윤치호의 행적, 그리고 그에 덧붙은 논평 형식의 전개 양상은 두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성과 서술 구도의 유사성을 확연히 보여준다. 다만 『한

17) 위의 책, 140-141쪽.

18) 김영하, 앞의 책, 184쪽.

국인 멕시코 이민사』가 윤치호 일기와 사가로서 이자경 자신의 추론적 서술을 명백히 구분한데 반해 『검은 꽃』은 단일 화자의 목소리로 그 경계를 지운다는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다. 사료에 기반한 재기술과 이를 전거 삼은 소설미학적 서술 간에 실상 심연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 대상이 공적 역사로 전제될 경우 역사소설가 역시 창(創)한다기보다 기(記)하는 자로 스스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에서 목도하게 된다. 역사의식이라는 그 실체가 다소 불분명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역사소설가라면 더더욱 그 같은 자기최면이 회의될 리 없을 터다. 기자에서부터 시인, 그리고 역사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자들이 앞다투어 역사소설 창작에 뛰어들었던 우리 근대문단의 한 풍경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이는 충분히 납득되고 남음이 있다. 그 근처에는 역사가연 하고자 하는 역사소설가의 욕망이 내재해 있을 터, 역사소설이 소문자 허구로 역사를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그 욕망은 분출되게 마련이다. 『검은 꽃』 역시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잉태된 역사소설 텍스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4. 복수의 담화적 층위

많은 이들이 ‘역사’와 ‘소설’ 내지는 ‘사실’과 ‘허구’를 길항하는 개념으로 내세워 ‘역사소설’을 정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소 편의적인 방법의 이 같은 정의대로라면 ‘역사소설가’는 그와 같은 글쓰기를 행하는 이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근대적인 소설의 한 양상으로서 역사소설의 성립 과정이 간단치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듯이 역사소설가라는 존재 역시 복합적인 문맥 속에서 탄생했다. 그 다층적인 맥락의 결들이 이 글에서 세세히 다 짚어볼 수는 없기에 『검은 꽃』의 담화 구조를 분석해보는 것으로써 그 일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멕시코 땅에 발을 디딘지 몇 해가 지나자 성질 급한 이민자 중에는 80에서 100페소에 달하는 돈을 농장주에게 지불하고 걸어나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단념하고 대도시로 나가 막노동 일꾼이 되었다. 첸체 농장의 제대 군인들 중 몇몇 역시 돈을 내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처럼 전직 제대 군인의 한 사람으로 몇 차례의 파업을 거쳐 명실상부 첸체 농장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던 조장윤은 농장을 떠나지 않는다. 수많은 한인들이 결국은 멕시코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규합하는 조직이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그는 자연스럽게 그 조직의 장으로 자신을 상상하며 새로운 독립군대의 창설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에 화답하듯 서술자는 다음과 같은 편집자적 논평을 내놓고 있다.

그때부터 조장윤은 스스로 정립한 승무(崇武)의 사상을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카탄의 한 농장에서 상상해낸 새로운 국가의 모습은, 1960년대 박정희 소장에 의해 현실화될 군부정권이 나 아랍 세력과 씬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이스라엘의 형태에 가까웠다. 동시대로는 중국에서 출현한 위안 스카이 등의 군벌정치를 닮아 있었다. 나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인 또는 전직 군인에 의해 통치되고, 자주적 군사력을 기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개병제 아래에서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미를 진다. 언론(그는 상소나 올리는 백면서생들을 떠올리고 있었다)은 적절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우선은 일본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격퇴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외교에나 의존하던 고종의 무리들은 순진하기 짝이 없었다.¹⁹⁾

위 인용문에서 보듯 서술자는 조장윤이 꿈꾸는 국가상을 후일의 역사를 참조점으로 끌어와 선점하는가 하면, 과거 조선의 무능한 권력자들과 달리 새로운 국가를 강성하게 이끌어갈 방도에 대해 충고를 아끼지 않는

19) 김영하, 앞의 책, 224쪽.

다. 서술자라는 페르소나(persona)로 문면에 등장한 작가가 마치 역사가인 양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적 해석과 함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등장인물 조장윤의 내면의식에 대한 대리적 진술이고 어디서부터가 서술자의 논평인지 모호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이 바로 서술자의 탈을 벗고 작가가 역사가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는 지점일 터, 서술자에서 역사소설가로, 다시 작가에서 역사가로의 변신은 이렇듯 순환된다.

역사소설가로서 서술자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에 수반되는 역사적 상상력이 근대 민족국가의 지평 안에서 작동한다는 데 있다. 『검은 꽃』의 도처에서 서술자가 역사소설가 혹은 역사가로 전화되는 순간은 예외 없이 근대 민족국가의 문제가 서사적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지점에서다. 이는 대중을 위한 민족 수난사의 기록으로 처음 등장한 역사소설 태동의 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국면이다. 근대의 역사소설 텍스트들은 표면상 민족서사로서의 명분을, 이면상 대중서사로서의 재미를 추구했다. 그리고 그 글쓰기의 욕망은 근대 민족국가 수립의 당위성으로 피력되곤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는 늘 반면교사 혹은 전범으로 환기되어야 마땅한 기억이었다. 물론 『검은 꽃』은 어느 평자의 헌사처럼 ‘민족과 국가의 회복을 염원한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심문하고 있다’²⁰⁾는 점에서 종래 역사소설 텍스트들의 지향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공적 역사에 대한 해체적 시선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대 민족국가의 원심력에 휘둘리며 거대서사의 굴레 안에 스스로 갇히고 만다는 것이다.

『검은 꽃』에서 이른바 탈역사주의적 관점의 투사는 혼종적인 발화들이 무수히 경합하는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목격된다. 그것은 외전상 다성적인 담화 구조가 전체 서사를 조율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인용되고 있는 장면이 그 좋은 하나의 예일 성싶다.

20) 남진우, 앞의 글, 327쪽.

(1)우울증으로 아무와도 말을 않던 이진우가 몸을 일으켰다. (2-1)제가 일을 나가겠습니다. (1)윤씨는 아들의 말을 제지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종도에게 청했다. (2-2)여보, 대환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낫겠소. (1)이종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2-3)계약을 했다고 않아. 지금 와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천리 만리 멀고 먼 길을, 누가 기차와 배를 태워준단 말이야. 우리 같은 무일푼에게! (3)윤씨는 숨이 막혔다. 누군가 목구멍으로 종이를 꾸역꾸역 우겨넣는 기분이었다. (4)길이 없었다. 그러나 어린 진우는 아버지와 어미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울증에서 벗어날 때면 조종이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5)까짓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부모들이 뭘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 싶었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살아남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어 보였다. 게다가 아무 것도 할 줄 모르고 달팽이처럼 집에만 처박혀 있는 아버지도 못마땅했다. (6)이종도는 망해가는 제 나라를 꼭 닮았던 것이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했다. 가족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으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²¹⁾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민선에 오른 이종도는 에네켄 농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굶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황족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한편 계약에 묶여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그의 아내 파평 윤씨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비교적 사태를 냉정히 판단한 아들 이진우가 생계를 위해 농장 일을 나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들 가족에 닥친 처지가 비로소 현실로 환기된다. 위 인용문에서처럼 세 사람 사이의 갈등을 서술자는 장면화 하여 중개하고, 대변하고, 논평한다. 한 단락의 짝막한 이 장면에는 작중인물 간, 작중인물과 서술자 간, 그리고 분열된 서술자 사이의 발화가 겹쳐 있다.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담화 구조를 분별해 보면 대략 여섯 개의 상이한 층위가 확인된다.

21) 김영하, 앞의 책, 111-112쪽.

- (1) 삼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 묘사
- (2-1) 작중인물의 발화(이진우)
- (2-2) 작중인물의 발화(윤씨)
- (2-3) 작중인물의 발화(이종도)
- (4)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중인물(이진우)의 내면에 관한 서술자의 묘사
- (5) 초점인물(이진우)의 시점에서 서술자의 묘사
- (6)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이렇듯 서술자는 스토리 밖, 즉 사건과 무관한 위치에 존재하나 담화적 층위에서의 개입을 통해 서사에 관여한다. 사건을 밖에서 지켜보는 삼인칭 관찰자로서 스토리를 말하는 동시에 사건을 내적으로 분석하는 전지적 작가로서 또한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작중인물들의 발화에 서술자가 가세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갈등은 네 개의 축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대개 소설 텍스트에서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경쟁하는 담화 구조는 수평적이며 다성적이기 마련이다. 이때 작중인물은 단순히 작가에 의해 조종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가와 나란히 공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부상한다. 말하자면 작중인물들이 단순히 작가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다.²²⁾ 그러나 작가와 그의 창조물, 즉 작중인물과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될 수 있는 다성성을 『검은 꽃』에서는 들을 수 없다. 왜 그러한가?

기존의 역사소설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의 하나는 서술자가 서사를 통어하는 존재로서 절대적 위치를 점한다는 사실이다. 서술자는 역사소설가로부터 역사지식 제공의 독점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설사 그 역사 지식이 공적 역사에서 끌어 온 사실이 아닌 허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서술자를 통해 발화되는 순간 허구성은 이내 소거된다.

22)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163-170쪽.

심지어 특정 역사소설 텍스트에 처음 등장한 허구가 후일 독자 대중에게 사실로 인식되거나 다른 역사소설 텍스트에 재전유 되는 해프닝이 연출될 정도로 서술자의 권위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사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오로지 역사를 이야기하는 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전횡은 용인될 수 있었다. 종래 역사소설의 이 같은 서술자와 비교할 때, 『검은 꽃』의 서술자는 작중인물들에게 그 권위를 대폭 양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신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긴장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서술자는 아버지 이종도의 봉건적인 사고에 비판적인 아들 이진우의 손을 일시 들어주며 균형을 잃는가 싶더니 이내 편집자적 논평을 내놓으며 팽팽했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 순간 작중인물들의 다성성은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작중인물이 자율성을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서술자(혹은 작가)와의 일정한 심미적 거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권위적인 서술자의 이 귀환과 함께 독자는 서술자로 분한 역사소설가의 육성을 듣게 된다. 그것은 『검은 꽃』이 예의 역사소설의 관습으로 복귀하는 찰나이기도 하다.

미시적 층위에서 확인되는 서술자의 위와 같은 성격은 거시적 측면에서는 허구와 사실 간의 분절 형식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검은 꽃』은 에필로그를 포함 총 7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장은 흥미롭게도 공적 역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서술된 장과 허구의 인물들이 펼치는 사건 중심의 장으로 구분된다. 앞서 이종도 가족사의 한 장면처럼 서술자와 작중인물 간의 발화가 경합하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1904년 2월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군은 조선에 상륙하여 서울을 장악하고 뤼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다. 이듬해 3월, 이와오(大山巖)가 이끄는 일본 육군 25만은 3월에 만주 평토편(奉天)에서 회전, 7만을 잃었으나 승리하였다.”²³⁾는 식의 연대기적 서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이 쓰기 시작한

23) 김영하, 앞의 책, 12쪽.

대한제국의 짧은 이민사는 1905년 이미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외교 공관들은 차례로 서울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그해 7월,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 타로는 각각 필리핀과 조선의 지배를 양해하는 비밀각서를 교환하였다.”²⁴⁾와 같은 사적 기록을 옮겨 놓은 듯한 장이 전자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장 구분에 따라 담화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적 역사에 관한 서술로 이루어진 전자의 경우 “그들이 떠난 나라는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처럼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²⁵⁾는 식으로 서술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평자적 첨언이 덧대어져 있다. 이처럼 서술상의 차이와 장 구분을 연계시키는 서사 전략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익히 식민지 시대 역사소설 창작에서 무수히 시험되었던 바, 그것은 역사 강화(講話)의 한 방편으로 쓰이고 읽혔던 역사소설의 기원이자 전통이다. 무릇 역사를 소설로 재현하는 역사소설가에 있어 치명적인 유혹이라 할 것이다.

김영하는 대화적 상상력의 발휘를 통해 역사소설에 덧씌워진 이 숙명을 거스르고자 했다. 실존인물과 가상인물, 그리고 서술자의 목소리가 상호 공명하는 허구의 대안적 시공간에서 공적 역사의 권위를 해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적이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 역시 기술하기보다는 기록하는 자로서 역사가연하는 역사소설가로서의 관성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허구의 미시사를 재현한 『검은 꽃』의 도처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수렴하는 정점으로서 서술자의 가면을 쓴 작가 김영하를 만나게 된다. 문제는 등장인물들과 화자 간의 그 같은 위계적 구도가 서사를 장악하는 순간 독자가 역사의 행간을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폐색되고, 서술자로 분한 작자의 역사 강의만이 일방 강요된다는 데 있다. 대체 역사 텍스트가 되고자 하는 역사소

24) 위의 책, 62쪽.

25) 위의 책, 같은 쪽.

설의 욕망이 절정을 향해 치달은 결과이다. 『검은 꽃』에서도 허구에 대한 사실의 구속에서, 소설을 향한 역사의 우월의식에서, 그리고 소설가에게 보내는 역사가의 추파에서 비롯된 이 파국이 예의 역사소설에서처럼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5. 닫힌 서사를 위한 변

흔히 역사소설은 대문자로 기억되는 역사를 후경화 하는 동시에 소문자 역사를 전경화 한다. 말하자면 거대서사를 배경으로 미시사의 복원을 꾀하는 것이다. 이때 그 미시사는 공인된 역사일 리 없다. 그것은 대개 상상력이 낳은 역사의 서자(庶子)로서 허구이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대문자 역사가 망각한, 그러나 대문자 역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허구의 현재적 기록인 것이다. 상당수의 논자들은 역사소설의 이러한 특성을 사실과 허구의 이항대립적 관계로 단순 도식화해왔다. 그러나 그 같은 편의적이고 피상적인 정의는 근대소설의 한 글쓰기 양상일 뿐인 역사소설에 독자적 양식을 구유한 독립 장르로서의 위상을 부여하려는 과욕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 그 기원을 애써 외면한 채 민족서사로서 역사소설을 신화화 하려는 정치적 무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엄정하게 말해 역사소설은 사실과 허구의 구분 너머에 있는 글쓰기다. 그 구분은 다만 작가의 의식상에만 존재하는 서술 태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허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작가는 그것을 역사적 상상의 힘을 빌은 창(創)이라 할 것이고, 기록적 전거의 의존도가 클 경우 충실한 기(記)이라 확신할 것이다. 이 분열의 봉합이 가능한 것은 내적으로는 역사의식을 내세워 스스로를 역사가로 가장하는 역사소설가의 신념이 그만큼 강고한 탓이고, 외적으로는 소설의 담화구조에 의탁하여 역사가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역사소설의 작가는 공히 이러한 창기(創/記)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 모순된 조화가 하나의

역사소설 텍스트를 잉태시키는 셈이 된다. 독자는 역사가로서의 의식이 투사된 이 글쓰기에서 사실의 지식을 얻는다는 지적 만족과 함께 허구가 생생하게 부여한 극적 재미를 일시에 맛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과 허구는 결코 길항하지 않는다. 철저히 공모한다. 역사소설의 대중성은 바로 이 소비메커니즘의 위대한 승리이다. 앞서의 지난한 논의는 『검은 꽃』 역시 이 계보에서 결코 예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1차 자료

김영하, 『검은 꽃』, 문학동네, 2003.

논문

김기봉, 「팩션의 역사, 팩션의 사회사」, 『21세기 문학』, 21세기문학, 2006년 겨울호.

김기진, 「朝鮮文學의 現段階」, 『新東亞』, 1935. 1.

김영하, 「작가의 말」, 『검은 꽃』, 문학동네, 2003.

남진우, 「작품해설: 무(無)를 향한 긴 여정」, 『검은 꽃』, 문학동네, 2003.

박유희, 「예술에 대한 메타텍스트로서의 두 역사극-<왕의 남자와 음란서생>」, 『문예연구』, 문예연구사, 2006년 봄호.

안희남, 「通俗小說의 理論的 檢討」, 『文章』, 1940. 11.

단행본

김기봉,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증매하다』, 프로네시스, 2006.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에 빠지다』, 삼인, 2006.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이자경,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지식산업사, 1998.

백종국, 『멕시코 혁명사』, 한길사, 2000.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웨인 패터슨, 정대화 옮김,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들녘, 2003.

카를로스 푸엔테스, 서성철 역,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까치글방, 1997.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ABSTRACT〉

Historical Novels, Across the Boundary Between
Creating and Recording: Focusing on Young-ha Kim's
Historical Novel *Gumunkkot(black flower)*

Byoung-Gill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eep structure of historical novelists' creative motive that has been accumulated since historical novel was imported and translated in modern Korea. For this purpose three point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reason for historical novelists to pay attention to the non-événemential and its meaning. The second is about the narrative strategy of historical novels that reconstruct the lost public history with fiction. The last is about the common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ors, historical novelists, and historiographers. This study grasps the major aspect of historical novel's tradition of attempting to public history rather than fiction. Young-ha Kim's historical novel *Gumunkkot(black flower)* was selected as a case since it is a suitable text to demonstrate historical novel's eternal tradition.

Key words : historical novel, non-événemential, public history, narrative strategy, the boundary between creating and recording, microhistory

| |
|--|
|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8.5. / 게재확정일 : 8.15. |
|--|